

중국정사 조선전 요사, 금사 내용 분석

1. <요사 이국외기 고려편>

○ 고려의 조공 기록

태조황제(太祖皇帝) 신책(神冊) 연간(A.D.916~921; 태봉궁예,泰封弓裔 6~高麗 太祖 4) 부터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寶劍)을 바쳤다. 천찬(天贊) 3년(A.D.924; 高麗 太祖 7)에 와서 조공하였다. 태종(太宗) 천현(天顯) 2년(A.D.927; 高麗 太祖 10)에 와서 조공하였다. 회동(會同) 2년(A.D.939; 高麗 太祖 22)에는 진(晉)에서 존호(尊號)를 올리니 이를 받고,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이 사실을 통보했다.

- 만부교 낙타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도 <요사>에는 기록이 부재.

○ 목종 시기 ‘허니문’

[통화(統和)] 16년(A.D.998; 高麗 穆宗 1)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誦)을 왕으로 책봉하였다. [통화(統和)] 20년(A.D.1002; 高麗 穆宗 5)에 송(誦)이 사신을 보내와 [요나라가] 송나라를 정벌하여 승전한 것을 축하하였다. 7월에 [사신이] 와 본국(本國)의 「지리도(地理圖)」를 바쳤다. [통화(統和)] 22년(A.D.1004; 高麗 穆宗 7)에 남방 정벌에 관하여 조서(詔書)로 효유(曉諭)하였다.

[통화(統和)] 23년(A.D.1005; 高麗 穆宗 8)에 고려에서 [요나라가] 송나라와 강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와 축하하였다. [통화(統和)] 26년(A.D.1008; 高麗 穆宗 11)에 [고려에서] 용수초석(龍鬚草席)을 바침과 아울러 중경성을 [쌓은 것도] 축하하였다. [통화(統和)] 27년(A.D.1009; 高麗 穆宗 12)에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가 붕(崩)하자 [요나라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였다.

- 1010년 강조의 난과 요나라 성종의 정벌 → 하지만 군대 철수 이후 항복한 성들은 다시 반란을 일으킴.

- 1016-1017년의 정벌 전쟁, 1018년의 소략한 살수 대첩 기록.

12월에 소배압(蕭排押)이 [고려와] 다하(茶河)·타하(陀河) 사이에서 싸웠는데, 요나라 군사가 불리하여 천운(天雲)·우피실(右皮室) 2군(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으며, 천운군 상운(天雲軍 詳穩) 해리(海里)·요련장 상운(遙輦帳 詳穩) 아과달(阿果達)·객성사(客省使) 작고(酌古)·발해 상운(渤海 詳穩) 고청명(高淸明) 등은 싸움터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 조공 기록 : 흥종(1031-1055)~도종(1055-1101)

흥종(興宗) 중희(重熙) 7년(A.D.1038; 高麗 靖宗 4) 에 와서 조공하였다. [중희(重熙)] 12년(A.D.1043; 高麗 靖宗 9) 3월에 [흥종에게] 존호를 더 올린 것을 [사신]이 와서 축하하였다.

[중희(重熙)] 13년(A.D.1044; 高麗 靖宗 10)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

[중희(重熙)] 14년(A.D.1045; 高麗 靖宗 11) 3월에도 와서 조공하였다.

[중희(重熙)] 15년(A.D.1046; 高麗 靖宗 12)에 공물을 보내왔다.

[중희(重熙)] 16년(A.D.1047; 高麗 文宗 1)에 와서 조공하였다. 그 이듬해에 또 와서 조공하였다.

[중희(重熙)] 19년(A.D.1050; 高麗 文宗 4)에도 조공하였다. 6월에 사신을 보내와 서하 정벌의 승전을 축하하였다.

[중희(重熙)] 22년(A.D.1053; 高麗 文宗 7)에 공물을 보내왔다. [중희(重熙)] 23년 (A.D.1054; 高麗 文宗 8) 4월에 왕휘(王徽)가 아들의 벼슬을 요청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검교태위(檢校太尉)로 올려 주었다.

- 요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빈번한 조공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타임레그?, 국제정세 정보 수집, 압록강 땅 요청, 삼한국공 책봉?)

○ 사신의 논

“고려(高麗)와 서하(西夏)가 요(遼)나라를 섬기면서 일찍이 국혼(國婚)을 요청하여 [요나라에서] 하가(下嫁)시켰지만,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변치 않는 마음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삼한(三韓)(고려)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반복(反覆)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양주(涼州)(서하)는 멀리 있음을 믿고서 [요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국경을 침입하여 틈만 있으면 함부로 [군사를] 출동시켰으며, 조공하는 사신이 막 가고나면 사건이 뒤따라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물어 친정(親征)이 잦았는데 승전이 실로 많았지만 패하여 후회하기도 하였다. 옛적에 오(吳)나라 조자(趙咨)가 위(魏)나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대국(大國)에는 정벌(征伐)하는 군대가 있지만 소국(小國)은 튼튼한 방어가 있다’고 하였지만 어찌 그래야만 하겠는가? 선왕(先王)은 먼 나라를 덕(德)으로 회유하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요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고려와 서하] 두 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비록 군사가 출동하였지만 어찌 금나라의 적수이겠는가?”

2. <금사 외국열전 고려편>

금 태조 아골타의 건국 이전 시기부터 여진과 고려의 관계를 다룬다.

○ 전체 내용 요약 : 금나라(1115-1234)가 흥기한 ‘백산’. 고려의 ‘칭신’

“흑수말같은 옛 숙신 땅에 있었으며, 백산(白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는 장백산(長白山)으로 금나라가 흥기한 곳이다. 여직(女直)이 비록 옛적에는 고[구]려에 예속되었으나 다시 서로 왕래하지 아니한 지 오래되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자 고려는 요나라를 섬기던 옛날 예대로 금나라에 칭신하였다.

○ 고려와 여진의 초기 관계

목종 10년 계미(1103)에 아소(阿疎)가 요나라에서 그의 무리 달기(達紀)를 시켜 갈라전(曷懶甸) 사람들을 유혹[선동하니] 갈라전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였다. 목종은 달기(達紀)를 고려에 보내주면서 고려왕에게, “앞서 그대의 변방에 난리를 일으켰던 자는 모두 이런 무리들이었다.” 고 말하였다.

- 초기에 금나라는 고려와 대결을 원치 않았다. 금나라는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요나라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해석함.

○ 금나라의 9성 개척 해석

[강종(康宗)] 4년 병술(丙戌)(1106)에 고려가 흑환방석(黑歡方石)을 사신으로 보내와 왕위 계승을 축하하자, 강종(康宗)은 배로(盃魯) 하여금 보빙(報聘)하도록 하고 또 예전의 약속을 들어 망명한 백성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고려가 허락하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국경에 이르러 인수하여 가라.”고 하니, 강종(康宗)은 이를 믿고 완안부(完顏部) 아괄(阿括)· 오림답부(烏林答部) 승곤(勝昆) 등으로 하여금 국경으로 가 인수하도록 하고, 강종(康宗)은 마기령(馬紀嶺) 을척촌(乙隻村)에서 사냥하면서 기다렸다. 아괄(阿括)· 승곤(勝昆) 등이 국경에 도착하자 고려는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살해하고 갈라전(曷懶甸)으로 출병(出兵)시켜 9성(城)을 쌓았다.

○ 강종(康宗)이 돌아오자 여러 사람들은 모두,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요(遼)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닮아 [칠가]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태조(太祖)만이 홀로, “만약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갈라전(曷懶甸)만 잃어버릴 뿐이겠는가? 여러 부(部)가 모두 우리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강종(康宗)도 그렇게 여기고 마침내 사색(斜塞)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도록 하여 고려군을 크게 쳐부수었다. 6월에 고려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 도전하자, 사색(斜塞)이 패전시키고 진격하여 그 성을 포위하였다. 7월에 고려가 다시 강화하자고 요청하니 강종(康宗)은, “조건이 맞으면 강화하라.” 고 하였다. 고려가 도망하여 들어간 백성의 송환을 허락하고 9성(城)의 병사도 철수시키며 침략한 옛 땅도 반환하겠다고 하자, 마침내 그들과 강화하였다.

○ 요-금-고려의 관계 : 보주 문제, 고려의 ‘잃어버린 10년’

[수국(收國)] 2년(A.D.1116; 高麗 睿宗 11) 윤(閏)[정,正]월(月)에 고려에서 사신을 보내와 [요나라와 싸워] 승전한 것을 축하하면서, “보주(保州)는 본시 우리의 옛땅이니 반환하여 주기 바라오.” 하자, 태조는 고려 사신에게, “그대들이 직접 탈취하라.” 고 대답하였다. 살갈(撒曷)· 오준(烏蠡) 등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만약 고려(高麗)가 와 보주(保州)를 탈취하려고 하면 호자고(胡刺古)· 습현(習顯) 등의 군사를 증강시켜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흑시라도 병사를 연합하려 하면 함부로 가지 말고 오직 변방만 신중히 지켜라.”고 하였다. 살갈(撒曷)· 아실리(阿實賚) 등이 보주를 공격하자 요나라 수장(守將)이 달아났는데, 고려(高麗) 병사들이 벌써 성(城) 안에 있었다. 얼마 후에 고려국왕이 포마(蒲馬)를 시켜 보주를 달라고 하니, 고려왕에게 조서를 내려 효유(曉諭)하기를 “보주는 그대의 변경에 가깝기에 그대가 직접 탈취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군사들을 고생시켜 적을 쳐부수어 성(城)이 함락되었소. 그리고 포마(蒲馬)는 다만 입으로만 말하였을 뿐이므로 표를 올려 요청한다면 그 때 가서 달리 의논하겠소.” 하였다.

○ 금나라의 국력 시위 및 고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정책

[천보(天輔)] 3년(A.D.1119; 高麗 睿宗 14)에 고려가 장성을 3척(尺) 높여 쌓자 국경의 관리가 병사를 파견하여 저지하였으나 듣지 않으면서, “옛성을 보수한다.” 고 통보하였다. 갈라전(曷懶甸) 패근(孝董)

호자고(胡刺古)· 습현(習顯) 등이 [조정]에 아뢰니,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행여 침입하여 사건을 일으키지 말고 오로지 군영을 튼튼히 하여 널리 척후병만 배치하라.”고 하였다.

고수(高隨)· 사야(斜野) 등이 고려에 사신으로 가 국경에 다다랐는데, 접대를 불공스럽게 하므로 [고(高)]수(隨) 등이 감히 입국하지 못하였다. 태종이, “고려가 대대로 요나라에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요나라를 섬겼던 예우로서 우리를 섬겨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상(喪)을 당했는데다가 요나라 군주를 아직 사로잡지 못하였으니 조금하게 강요하지 말라.” 하고서, 고수(高隨) 등에게 되돌아오도록 명하였다.

천회(天會) 2년(A.D.1124; 高麗 仁宗 2)에 동지남로(同知南路) 도통(都統) 골실답(鶻實答)이, “고려가 [우리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받아들이고 변방의 방비를 증강하니 필연코 탄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상주하니,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대체로 통문(通問)이 있을 적에는 통상적인 규칙을 어기지 말고, 혹시라도 침략해 오면 너의 군대를 정돈하여 그들과 싸워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먼저 고려를 침범한 자는 승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하고서, 도모(闍母)에게 조칙하여 갑사(甲士) 천명을 거느리고 해도(海島)에 주둔하여 고려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 1126년의 고려의 칭번 : 요나라와의 구레

[천회(天會)] 4년(A.D.1126; 高麗 仁宗 4) 에 [고려]국왕 왕해(王楷)가 사신을 파견하여 표를 올려 번국(蕃國)으로 자칭하니, 정중하게 조서를 내려 답하였다. 상이 고백숙(高伯淑)· 오지충(烏至忠) 등으로 하여금 고려에 사신으로 보내어, [고려와의] 사신 왕래는 마땅히 요나라와의 구레를 따르도록 함과 아울러 보주(保州) 및 변방 사람으로서 고려에 있는 자들도 색출하여 모조리 송환하도록 하였다. 고백숙(高伯淑)에게, “[고려가] 만약 일일이 순종하면 즉시 보주(保州) 땅을 주도록 하라.” 하고 조칙하였다. 고백숙(高伯淑)이 고려에 다다르니 왕해가 표를 올려 사례하고 모든 일은 요나라를 섬기던 옛날 제대로 하였다.

- 당대 고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정책은 요나라와의 전쟁을 감안해야 함.
- ‘요나라와의 구레’가 무엇인가?
- 보주 문제(당대 고려의 중요한 목표)
- 이자겸과 척준경 세력의 득세와 고려의 대금 정책의 변화

○ 1170년 무신정변과 금

[대정] 10년(A.D.1170; 高麗 毅宗 24)에 왕현(王暉)의 아우 익양공(翼陽公) 호(皓)가 현(暉)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10월에 생일사(生日使)를 보냈는데, 대종정승(太宗正丞) 규(虬)가 국경에 이르자, 고려의 국경 관리가 전왕(前王)은 이미 양위하였다고 말하면서 사신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대정] 11년(A.D.1171; 高麗 明宗 1) 3월에 왕호(王皓)가 양국(讓國)에 관한 사실을 아뢰는 [사신을 보내]려 하자, 파속로(婆速路)에게 조칙(詔勅)하여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는 한편 유사(有司)의 이문(移文)으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였다. 고려에서 통고하기를, “전왕이 오래도록 병을 앓아 정신이 혼미하여

정치를 할 수 없기에, 친아우인 호(皓)더러 국사를 임시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하니, 상(上)은, “양위는 큰일인데 어째서 먼저 아뢰어 요청하지 아니하였단 말인가?” 하고서, 유사(有司)에게 조직하여 재차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 왕현(王暉)이 양국(讓國)하겠다는 내용의 표를 가지고 와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대계 선신(先臣) 해(楷)가 아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도록 유언(遺言)하였다고 칭탁하고, 또 왕현(王暉)의 아들은 죄가 있어 임금으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이었다.

○ [그러나] 상(上)이 의심하여 재집(宰執)에게 질문하니, 승상 양필(良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현(暉)은 아들이 하나이니 지난해에 손자를 낳자 표를 올려 손자를 얻은 기쁨을 스스로 아뢰었으니 [이것이] 첫째이며, 호(皓)가 과거 반란을 일으키자 현(暉)이 그를 옥에 가둔 것이 그 둘째이며, 지금 현(暉)이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호(皓)가 도리어, 사신을 파견한 것이 그 셋째이며, 조정(朝廷)에서 현(暉)에게 생일사를 보냈는데 호(皓)가 현(暉)에게 안내하여 보내지 않고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칭탁한 것이 그 넷째입니다. 이것은 호(皓)가 형(兄)의 [임금자리를] 찬탈하고자 천자에게 거짓으로 [책봉을] 요청하는 것이니 어찌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뢰고, 우승(右丞) 맹호(孟浩)는, “마땅히 고려(高麗) 사민(士民)들에게 물어보아 진실로 모두가 [호(皓)를] 추대하고 복종하면 바로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은, “한 나라의 임금을 책봉하면서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는 맹안모극(猛安謀克)을 제배(除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며 곧 고려의 사신을 물리치고, 왕현(王暉)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조서를 내리며 이부시랑(吏部侍郎) 정(靖)을 왕현(王暉)에 대한 선문(宣問)사(使)로 삼았다.

○ [대정] 12년(A.D.1172; 高麗 明宗 2) 3월에 결국 책봉하여 주었다. 호(皓)의 생일은 정월 19일인데, 이 해 12월이 거의 다 되도록 미처 [생일]사를 파견하지 못하였더니 유사(有司)가 내년(來年)에 거행하자고 주청하였다.

- 금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 고려가 책봉을 요청하게 함.

○ 1175년 조위총의 난

[대정(大定)] 15년(A.D.1175; 高麗 明宗 5)에 고려의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총(趙位寵)이 호(皓)를 배반하고 서언(徐彦) 등 96명을 파견하여 표를 올려 아뢰기를, “전왕이 사실은 [임금 자리를] 피하여 양위(讓位)한 것이 아니라 대장군 정중부(鄭仲夫)· 낭장(郎將) 이의방(李義方) 등이 실은 살해하였습니다. 신(臣) 위총(位寵)이 자비령(慈悲嶺) 서쪽에서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는 4십여성(城)을 바치고 내속(內屬)하겠으니 군사로 원조하여 주십시오.” 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왕호(王皓)에게 이미 책봉을 내렸는데, 위총(位寵)이 함부로 병사를 불러들여 반란을 일으키고 또 땅도 바치려 하고 있다. 짐은 만방(萬邦)을 회유·위무하고 있으니, 어찌 반신(叛臣)의 포악한 짓을 도울 수 있겠는가?” 하고서, 서언(西彦) 등을 붙잡아 고려에 보내도록 하였다.

- 조위총의 난에 대해 금 조정은 이를 ‘반신’으로 규정. 조위총의 난이 평정됨으로써, 생일회사(生日回謝)·횡사회사(橫賜回謝)·하정단(賀正旦)·진봉(進奉)·만춘절(萬春節) 등의 사신 파견이 다시 시작됨.

○ 옥 사건

[대정(大定)] 17년(A.D.1177; 高麗 明宗 7)에 정단(正旦)을 축하하는 예물(禮物)로 보내온 옥대가 옥(玉)과 비슷한 돌인지라 유사(有司)가 이문(移文)을 보내어 물어보자고 주청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저 소국(小國)에서 [옥을] 식별하는 사람이 없어 옥으로 잘못 알았을 뿐이니 굳이 이문(移文)을 보내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마침내 중지하였다.

- 고려를 ‘소국’으로 파악하고 있음.

○ 대정의 고사

“태화 7년(A.D.1207; 高麗 熙宗 3) 정월, 이때에 병사를 출동시켜 송나라를 정벌하였다. … 천수절(天壽節)에는 [서]하와 고려 사신이 모두 있자 유사(有司)가, “대정(大定) (A.D.1161~1189; 高麗 毅宗 15~明宗 19)초기에는 송나라가 강화를 요청하기 전에도 [서]하·고려의 사신들에게 곡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대정(大定)의 고사에 따르십시오.” 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 금의 대 고려 정책 : 송 공략 전 서하와 고려를 위무함으로써, 송 공략에 집중하는 것. 금의 입장에서 서하와 고려의 위상은 유사한 듯 보임.

○ 1219년의 고려의 조공 요청

흥정 3년(A.D.1219; 高麗 高宗 6)에 요동행성(遼東行省)에서 고려가 다시 봉표·조공할 뜻이 있다고 상주하자, 재신(宰臣)들이, “행성에서 고려의 표는 받도록 하고, 그 조공하는 예는 후일 서서히 의논하십시오.”하고 아뢰었다. 선종은 이를 옳다고 여겨 마침내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를 위무 효유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도로가 막혀 [고려에서 금의 사신을] 영접하지 못하였다. 행성에 조칙을 내려, 계속 [고려를] 기미(羈縻)하여 호의(好誼)를 끊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뒤로부터는 다시 사신이 왕래하지 못하였다.

- 1219년 고려는 왜 조공을 요청했는가? → <고려사>를 통한 검토 필요.
- ‘기미’의 대상으로서의 고려. 하지만 그 기미의 수준은 금 제국 수준이 아닌 요동행성의 관리.
- 하지만 중도가 몽골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요동과 금 제국 정부가 있는 개봉의 연결망이 두절됨.

참고할 만한 책/논문

김순자, “10-11세기 고려와 요의 영토정책”, <북방사논총> 11호, 2006.
 김순자, “고려 현종의 즉위와 거란의 침략 원인”, <한국중세사연구> 22호, 2007.
 김순자, “고려 전기 거란, 여진에 대한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26호, 2009.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 금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권, 2012.
 김재만, <거란-고려 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1999.
 구산우,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호, 2010.
 노계현, <고려외교사>, 갑인출판사, 1994.

송병우, 유영옥, “국역 고려사 완간의 의미와 활용 연구 : 고려 전기 대요 외교문서 핵심어 여연구”, <석당논총>, 2012.

심재석, <고려국왕책봉연구>, 해안, 2002.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이미지, “고려 초기 지칭 표현을 통해 본 대 거란관계”, <사학연구> 99호, 2010.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추명엽, “고려 전기 ‘번’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호, 2002.